

시가지 곳곳 현대 미술 '판' 벌인다

내년 광주비엔날레 어떻게 치러지나

'만남과 교류' 역점 순수미술 축제로 위상 재정립 '길위에서' 등 3개 섹션...세계적 미술가 초청강의도

2008 광주비엔날레(9월5~11월9일)는 비엔날레 개최 도시인 광주 곳곳을 현대미술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미술축제로 진행된다. 그동안 비엔날레는 중의공원 전시장에서 치러졌으며 시민 축제로 승화되지 못했으나 내년 행사는 공공미술관과 시설을 전시장으로 이용함으로써 광주를 현대 미술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보인다. 오쿠이 엔위저(Okui Enwezor)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이 5일 제104차 이사회에서 밝힌 전시 기본개념과 전시구성안의 핵심은 바로 '광주'다. 그가 광주를 현대미술의 공간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은 광주시립미술관과 5·18기념문화센터, 의재미술관, 광주극장 등을 관람객들과 현대미술이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 내년 비엔날레에는 세계 각국 미술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인스티

튜트 과정'이 개설돼 국내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학점을 이수하고 세계 미술의 흐름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처음으로 도입된 '글로벌 인스티튜트 과정'은 오쿠이 감독이 학장으로 있는 샌프란시스코 미술대학의 '다국가 교육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강의식 교육과정으로 광주비엔날레를 해외에 알리고 광주를 중심으로 한 미술담론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 없는 행사로 치러지는 내년 비엔날레는 '연례보고(Annual Report)'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길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첫 번째 섹션 '길 위에서'는 2007~2008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소개된 미술, 영상, 퍼포먼스 등의 작품 30여점이 선보이며 문화적 교류와 만남의 공간을 제공한다. 두 번째 섹션 '제안'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



5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제104차 이사회에서 이사회진들이 2008비엔날레 전시구상안,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동, 남아, 유럽 및 북미 지역 등의 큐레이터 8명이 현대미술의 미래 경향을 소개하는 전시로 구성된다. 세 번째 섹션 '끼워넣기'는 세계 각국에서 작품성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신예 미술가들이 참가해 전시를 통해 미술담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꾸며진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랜지트 호스크테

(Ranjit Hoskote-인도) 'The Hindu' 부편집장과 계원예술대 갤러리 객원 큐레이터 김현진씨가 큐레이터로 확정 발표됐다. 재단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비엔날레 참여작가 선정작업을 마친 뒤 전시공간 구성(7월), 전시작품 설치(8월) 등 행사준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현대미술의 경향과 새로운 조류 등을 주제에 제약받지 않고 폭넓게 아우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주제없는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오쿠이 엔위저(Okui Enwezor) 광주비엔

"뜰에 구애 받지 않는 파격 전시 기획"

날레 예술총감독은 5일 광주비엔날레 손님 맞이 준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비엔날레가 처음으로 주제없는 전시로 치러지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경아 파문'으로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큐레이터들이 풍부한 경

험과 열정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미술이라는 공통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결과 나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비엔날레 개최 도시 광주를 미술교류와 매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고민했다는 그는 "광주시립미술관, 5·18 기념관 등지에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대중들과 호흡하는 전시

를 마련할 것이다"며 "의재미술관과 예술극장인 광주극장은 예술적 영감과 신선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미술과 작가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내년 광주비엔날레에서는 2007~2008년까지 전개된 세계 각국의 현대미술을 조명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社 告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신춘문예의 역사를 이끌어 온 광주일보사가 한국 문단의 내일을 이끌어갈 신인들의 작품을 공모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는 광주일보 창간 이듬해인 1953년부터 전통과 권위의 등용문이 되어왔으며 배출된 작가들은 한국문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수성과 치열한 문학정신으로 한국문학에 새 지평을 열 작가 지망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단편소설·시·동화...12월 15일 마감

- ▲ 부문 및 상금
 - 단편소설: 200자 원고지 8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300만원)
 - 시: 3~5편(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동화: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당선작 1편, 상금 100만원)

- 접수마감: 2007년 12월 15일
- 보내실 곳: 우편번호 501-711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전화: 062-2200-635)

- 기타
 -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주소·이메일 주소·인물사진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光州日報社

송년 특별 공연 '아름다운 몸짓...'

7일 광주문예회관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송년 특별 공연 '아름다운 몸짓, 흥겨운 가락, 따뜻한 겨울'이 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시립극단과 국악관련악단이 함께 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태평무, 부채춤과 국악관현악이 어우러진 박명훈 곡 '축연무', 황호준 곡 '빛의 나라', 흥겨운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등이 공연된다. 또 시립극단 송순섭 단장이 관소리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과 '새 타령'을 들려주며 박중선씨가 '박중



〈박중선씨〉 〈주병선씨〉 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을 들려준다. 그밖에 가수 주병선이 출연, '칠갑산', '개벽', 드라마 '대조영'의 삽입곡인 '어머니의 나라' 등을 선사하며 국극단 무용팀이 채환순씨의 안무로 '신명'을 선사한다. 전석 초대. 문의 062-510-92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청년글방' 후원의 밤

문화연대, 오늘 '뷰이호프'서

20년 가까이 광주지역 '젊은 지성'들의 보급 자리 역할을 해온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 서점 '청년글방'이 6일 오후 5시 후원의 밤 행사를 갖는다. 광주·전남문화연대(대표 김하림·김선출·나희덕)가 운영하는 '청년글방'에 있어 2007년은 의미가 큰 해다. 경영·재정난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청년글방'이 문화연대에 의해 기사 회생 된 것은 지난 2005년 7월. 없어지도록 그냥 두기에는 '청년글방'의 상징성이 너무 컸기 때

문이다. 이후 문화연대는 단순한 서점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100㎡ 공간에 세미나실과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을 꾀했다. 이날 '청년글방'과 인근의 '뷰이호프'에서 열리는 후원의 밤에는 지역 가수 한보리, 오영목씨와 풀잎으로 피리 소리를 들려주는 권형준씨 등의 공연이 마련된다. 문화연대 측은 행사에서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 10여점과 음로 티켓을 판매,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의 062-511-4630.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동구여성합창단' 정기 공연

6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동구여성합창단'(단장 이옥현) 제11회 정기 공연이 6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다함께 누리는 영광', '파도는 잠이 들고', '천사' '꽃밭에서', '산유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광주연시안 요들클럽' 회원으로 구성된 남성중창팀과 테너 조효종이 찬조 출연한다. 지난 1996년 광주에서 처음으로 창단된 동구여성합창단은 각종 위문공연과 자선음악회를 펼쳐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성 생명문학축전

9일 득량면 강골마을서

창작21작가회(대표 문창길)는 9일 오후 2시 보성군 득량면 강골마을에서 '2007 평화마을을 찾아가는 보성생명문학축전'을 연다. 고흥작가회와 강골마을보존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이정민 전통한옥마을보존회 회장이 마을을 소개하고, 강골마을 어르신들이 관소리 및 구술강연을 들려준다. 전 팔치산 여성대원인 이두화씨는 체험 중심의 현대사 강연을 할 예정이다. 또 시낭송과 김장 타기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문의 02-2267-6833.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귀중한 오늘' 등 54권 우수문학도서 선정

시인 김남조의 시집 '귀중한 오늘' (시화) 등 총 54권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정현)와 문학나눔사업 추진위(위원장 김치수)이 선정하는 올해 4/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 김남일의 '산 내려가는 법'(실천문학사) 등 소설집 14권, 김남중의 '주먹꿈을 지켜라'(우리교육) 등 아

동·청소년 문학 9권, 권현옥의 '속살을 보다'(문학관) 등 수필집 5권, 김태환의 '문학의 질서'(문학과학자) 등 평론집 5권 등이다. 전체 목록은 문학나눔 홈페이지(www.for-munh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러오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에메1544-0600</p> <p>1관 세븐데이즈 (18세) 최고급관 2관 색,계 (18세) 3관 베오울프 (15세)/쏘우4 (18세) 4관 식,객 (12세) 5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6관 데스세텐스 (18세) 7관 열한번째 엄마 (12세)/우리동네 (18세) 8관 9관 헤어 스프레이 (12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되었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주차권 취제-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엔터 시네마 총창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열한번째엄마 (12세) 2관 이브닝 (15세) 3관 우리동네 (18세) 4관 스카우트 (12세) 5관 식,객 (12세) 6관 골든에이지 (12세) 7관 베오울프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워너-옥외 주차장 300대 * * 빛고를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p>	<p>원도시영영화사 • 이메일: www.joyobo.com / 1588-7941</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력회관앞편)</p> <p>1관 히트맨 (18세) 2관 데스세텐스 (18세) 3관 색,계 (18세) 4관 세븐 데이즈 (18세) 5관 우리동네 (18세) 6관 헤어 스프레이 (12세) 7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8관 베오울프 (15세)/미미 클레이튼 (15세) 9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10관 식,객 (12세)</p> <p>*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실야 상영합니다 1588-7941 클라우드점 (10여점) 잘린 상영중 성명연결 방법 -1천여 2번-1번</p>	<p>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a.co.kr / 1544-0070</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색,계 (18세) 2관 우리동네 (18세) 3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4관 데스세텐스 (18세) 5관 열한번째 엄마 (12세)/식,객 (12세) 6관 헤어 스프레이 (12세) 7관 세븐 데이즈 (18세)</p> <p>*매일실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북사 사무(모바일-캐시)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 / 1588-9101</p> <p>무등극장 총창로 1가 ☎ 232-9106</p> <p>1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2관 베오울프 (15세) 3관 우리동네 (18세) 4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5관 식,객 (12세) 6관 히트맨 (18세) 7관 헤어 스프레이 (12세) 8관 클레이튼 (12세) / 색,계 (18세) 9관 세븐데이즈 (18세)</p> <p>*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컴퓨터 화면을 위한 전용구미판 • 전좌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p> <p>제일 시네마 총창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p> <p>1관 세븐데이즈 (18세) 2관 어거스트 러쉬 (전제) 3관 열한번째 엄마 (12세) 4관 우리동네 (18세) 5관 식,객 (12세) 6관 색,계 (18세)</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